

CONTENTS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2013.06



- 02 FOCUS 행복한 도시락 1 + 1
- 04 REVIEW 오병이어의 날 나눔축제
- 06 REVIEW 어버이날 효도관광 & 한상차림
- 08 국내 다일의 현장 다일복지재단
- 10 해외 다일의 현장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 12 해외 다일의 현장 미주 다일공동체
- 14 천사기업 허벌라이프
- 16 봉사자 나눔터 밥퍼는 000다
- 17 봉사자 나눔터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 18 아름다운 변화 작은천국의 선한 사마리아 셰프
- 19 영혼을 위로해주는 시
- 20 다일뉴스
- 23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24 후원안내

후원 문의 및 신청 02-2212-8004 www.dail.org

발행인 | 최일도 편집장 | 김연수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발행일 | 2013년 06월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 1동 495-15 편집위원 | 김철민, 김효은, 목정수, 박정식, 이기영, 이태형, 황선아
사진 | 목정수 디자인 | 이진희 전화 | 02-2212-8004, 2213-8004 팩스 | 02-2243-8005

행복한 도시락 1 + 1

지구촌 나눔 릴레이 '밥부터, 같이 먹자!'



행복한 도시락 1 + 1 이란?

“밥부터 같이 먹자!” 라는 슬로건으로 탄생한 행복한 도시락 1 + 1. 내가 먹는 이 도시락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의 도시락이 되어 전달되는 사랑의 나눔 캠페인입니다.

1 첫 번째 행복한 도시락 1 + 1

분단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DMZ. 2013년 4월 27일 양구 미술관에서 열린 DMZ 60년 화해의 페스티벌 ‘평화로 가는 길, DMZ in 양구’ 에서 행복한 도시락 1+1, 지구촌 릴레이 ‘밥부터 같이 먹자!’가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에 굶주린 이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먹는 맛있는 밥이 그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날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서 행복한 도시락에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2 두 번째 행복한 도시락 1 + 1

매년 5월2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로 이루어지는 나눔 축제, 오병이어의 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오병이어)로 수천명의 사람이 먹고도 남았다는 성서의 이야기처럼 밥퍼나눔운동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2013년 5월 2일 밥퍼야마당에서 열린 오병이어의 날 나눔 축제에서 두 번째 행복한 도시락 1+1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70여 기업과 단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도시락을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 날 모아진 사랑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아이들에게 사랑의 도시락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이제 세 번째 행복한 도시락 1 + 1이 시작됩니다.

북한의 희망으로, 아시아의 용기로, 아프리카의 생명으로 행복한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행복한 도시락 1+1’ 에 동참해 주세요.
 당신의 사랑이 도시락을 채워 전세계에 배달 됩니다.

행복한 도시락 1 + 1 문의
 02-2214-0365 이태형 팀장 / 황선아 실장



“가까운 사람들과 서먹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할 때,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인간관계를 시작 할 때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밥부터 같이 먹는 것입니다. 행복한 도시락으로 굶주린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주세요. 아하!!”
 -최일도

오병이어의 날 나눔축제

보리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배불리 먹이셨던 성서의 이야기. 오병이어의 날은 1년에 한번 5월 2일에 다일공동체에서 매일 작은 정성을 모아 밥을 나누었던 하루하루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병이어의 날 나눔축제 1부

나눔축제 1부에서는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 앞마당에서 오병이어의 날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도시락 1+1 선포식과 기업감사패 전달식도 있었습니다.

소망교회 풍물놀이팀에서 축하공연을 해주셨고, 다일 후원자 선 님을 비롯하여 41개의 기업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이 날도 어김없이 밥퍼봉사자들의 봉사로 오병이어의 날 기념 밥퍼 배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날 기념예배



오병이어의 날 행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

오병이어의 날 나눔축제 2부

나눔축제 2부는 서울다일교회 주최로 해외분원에서 봉사한 장기 봉사단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 등 파견국은 다름지라도 '다일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봉사하였던 봉사단원들, 이번 모임을 통하여 봉사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며 나눔축제라는 이름에 걸맞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병이어의 날 행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

선&정혜영	하이트진로
외환은행나눔재단	스키니태에스테틱
세무법인 석성	(주)에스지엔지
한일이화	국방홍보원
법무법인 세한	서울우유
나눔스토어	안전행정부
하늘샘교회	썬앳푸드
한전KDN	비건의료기
허벌라이프	주전자팀
동대문구청	옥합선교회
뷰티플마인드	미래에셋
한국수령원자력	크룩스코리아
새로운교회	GEOWS KOREA
동아제약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양현재단	핸드스튜디오
공무원연금공단	금융감독원
건설공제조합	(주)두산
서울석유	에듀코
수도권산악회	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
사나모	금호석유화학
한국씨티은행	서울메트로신답승무사업소

어버이날 효도관광 & 한상차림

♪ “날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쁨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 ♪

2013년 5월 8일 오전 9시 밥퍼나눔운동 본부 앞마당에 어버이날 노래가 울려퍼졌습니다.

일년의 하루 부모와 자녀의 정을 나누는 어버이날, 찾아오는 자녀도 카네이션을 달아 줄 손주도 없는 어르신들을 위한 ‘밥퍼의 어버이날 잔치’.

올해는 <1부 한수원과 함께 하는 효도관광>과 <2부 허벌라이프와 함께 하는 한상차림>으로 잔치를 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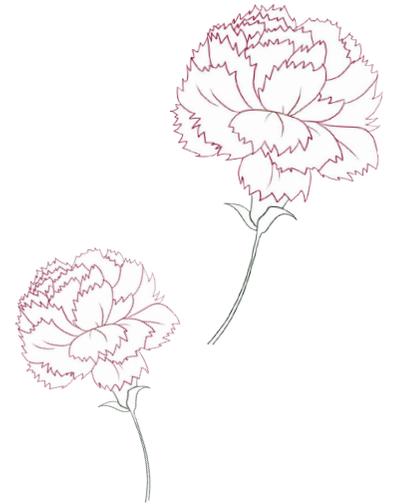
1부 효도관광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어르신 150여분을 모시고 2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딸기따기 체험, 몽골문화촌, 청평양수발전소를 견학 하였습니다.

1. 효도관광 단체사진
- 2-3. 딸기따기 체험
4. 몽골마상소
5. 선물전달

2부 한상차림

관광에 참여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허벌라이프에서 야외식탁 한상차림을 준비해주셨습니다. 소망교회 풍물팀의 공연과 뷰티플마인드의 관현악공연, 다니엘복지원 학생들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멋지게 옷을 차려입으신 어르신, 소녀처럼 발그레한 화장을 하신 어르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며 웃으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뵈며 1년 365일이 매일 어버이날만 같았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따뜻함 넘치는 행사였습니다.

1. 흥겨운 최일도목사님과 어르신
2. 소망교회 풍물놀이
3. 다니엘복지원 사물놀이
4. 허벌라이프 배식
5. 허벌라이프 공연

기획홍보실

1. 부서 소개

기획홍보실은 다일공동체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일공동체에서 하는 일들이 사회에 잘 접목될 수 있도록, 또 사회의 일들을 다일공동체가 잘 접목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죠. 소식지, 홈페이지, 사진·영상, 보도자료 등의 매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김효은 간사 목정수 과장

목정수 과장

“국내의 다일공동체 분원의 활동과 사역을 알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 업무는 촬영과 영상 제작입니다. 자원봉사와 후원을 통하여 함께 참여하는 분들의 행복과 기쁨을 알리고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있습니다.”

김효은 간사

“소식지와 홈페이지 관리 그리고 사진관련 업무가 저의 주 업무예요. 다일공동체의 사역들이 사회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2. 부서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많은 사람에게 나눔과 섬김이 주는 기쁨과 감사를 나누고 누릴 수 있도록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가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목표예요.

3. 나누고 싶은 사례

세번째 문화나눔으로 “알렉산더 크냐제브 연주회”행사를 하였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매체들을 총 동원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였어요. 그 결과 후원회원님들과 나눔행사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성황리에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었어요. 홍보의 중요함과 뿌듯한 마음이 동시에 느껴지더라고요~.

4. 부서별 질문

Q. 요즘 시대는 sns 온라인 홍보매체가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어떤 홍보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요즘 추세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의 홍보과급효과가 큰 건 사실이에요. 저희 다일공동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블로그를 이용하고 있어요. 부수적으로 해피빈을 통해 테마 사역등을 소개하고 있구요. 그런데 온라인 못지않게 오프라인 홍보도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 정보들을 접하시지만 온라인을 접하시기 불편하신 연령계층도 있으니까요. 그 분들께는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소식지가 다일의 많은 소식들을 접하실 수 있는 일차적 매체가 되요^^

Q. 홍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A. 공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심전심이란 옛말이 있듯이 서로 마음이 동하고 뜻이 통해야 자발적인 봉사 참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도 항상 같은 마음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알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캄보디아다일공동체-아름다운변화 프로젝트] "캄보디아 소년 르은이"



1. 부서 소개

대외협력실은 해외분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지원 및 해외분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연계와 교육, 국내외 모든 분원의 교육 훈련과 관리업무 조율 및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은영 주임 이애리 실장

이애리 실장

“대외협력실에서 진행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확인 및 조율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천은영 주임

“해외분원의 프로젝트관리 (코이카, 사랑의 열매 등), 해외장단기봉사단파견 및 교육관리, 해외분원의 목적 사업 지원 및 회계 결산등을 담당하고 있어요.”

2. 부서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인도적 정신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이에 관심을 갖고 파견되는 스텝 및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3. 나누고 싶은 사례

저희가 진행하고있는 프로젝트 중 “아름다운변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중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캄보디아다일공동체-아름다운변화 프로젝트]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캄보디아 소년 르은이, 르은이를 살리고 싶은 엄마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2012년 4월 씨엠피에 있는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다일천사클리닉에 다급하게 아이를 안고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열한 살이 된 르은이는 심장이 안 좋아서 이곳 저 곳 병원을 전전공공하며 다녔지만 심장병 수술을 받지 못해 아이의 상태는 더욱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대외협력실

어떻게라도 아이를 살리고 싶은 엄마는 바탐방이라는 곳에서부터 배를 빌려 타고 무작정 씨엠피 다일천사클리닉을 찾아왔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아이의 입술과 손톱이 모두 새파랗게 질려있었습니다. 정맥혈이 폐로 가지 못하고 동맥과 섞여 대동맥으로 나가 표면상 파랗게 보이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캄보디아 소년 르은이, 르은이를 살리고 싶은 엄마의 소원이 르은이를 살리고자 힘써주신 많은 분들의 기도의 후원, 물질의 후원 덕분에 이루어졌습니다. 건강해진 심장 덕분에 땀 수도 있게 되었고, 해맑게 웃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캄보디아 소년 르은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으며, 이제 두 번째 삶이 시작된 르은이의 앞길에 축복이 가득 하길 기도합니다.

4. 부서별 질문

Q. 해외사업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알고 싶고,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다일공동체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사업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며, 참여하고 싶으신 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실 수 있어요. 이 외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일복지재단 대외협력실에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사업참여를 원하실 경우 다일공동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대외협력실에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대외협력실 02-2212-8004

‘한 켌 치고 나눔 운동’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이야기

지난 2월 25일, 최일도 목사님께서 날마다 써서 부치시는 행복편지를 통하여 선포된 캠페인, ‘한 켌 치고 나눔 운동’ 모두 기억하시죠?

커피 한 잔 마신 켌 치고, 영화 한 번 본 켌 치고, 밥 한끼 먹은 켌 치고 십시일반 동참해 주신 사랑과 정성으로 인해 드디어 탄자니아 다일공동체가 90평 남짓한 작은 부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주 다일공동체 후원회원님께서 컨테이너 두 동과 천막을 칠 수 있는 비용을 후원해 주셔서 매입 부지 안에 컨테이너 두 동을 설치하고 기초 공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매입 부지 경계선을 따라 담을 쌓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밥을 할 수 있는 건물이 없어 계속해서 매입 부지 노천에서 밥을 합니다. 호기심 많은 탄자니아 아이들이 뜨거운 장작 불과 달궈진 솥에 다칠 위험이 있고, 최근 탄자니아에서는 총기 강도, 폐강도들이 한국 NGO, 선교사 가정을 습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담벼락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 저장 탱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물이 부족하죠. 탄자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탄다일이 구매한 땅은 다행히도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수도 설치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상수도가 늘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밥을 짓기 위해, 특히나 물을 많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저희들은 물을 받아 놓고 사용할 수 있는 물 저장 탱크가 꼭 필요한 것이지요. 이렇게 받아 놓은 물은 밭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귀한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계획입니다.



탄자니아는 현재 우기철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는데 하늘이 원망스럽게 어지나 비가 쏟아져 내리는지요. 결국에는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서 도로 쪽에 있는 컨테이너 한켠이 무너지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무 사고 없이 다시 컨테이너를 안쪽으로 들여 놓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25년 전 최일도 목사님께서 청량리 역광장 바닥에서 버너, 코펠, 라면으로 시작하셨듯이 2013년 1월 11일, 천막을 치고 바닥에서 시작한 탄자니아 다일공동체가 5개월도 채 안되어 크지 않은 조그마한 부지에서 또 한걸음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일공동체를 사랑해 주시고 탄자니아의 가난하고 소외된 쿤두치 채석장 빈민촌 아이들을 위해 참사랑의 나눔과 섬김을 실천해 주신 후원회원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재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원장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후원하기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33964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문의 탄자니아 변창재 원장
255-786-740-003
dail8004@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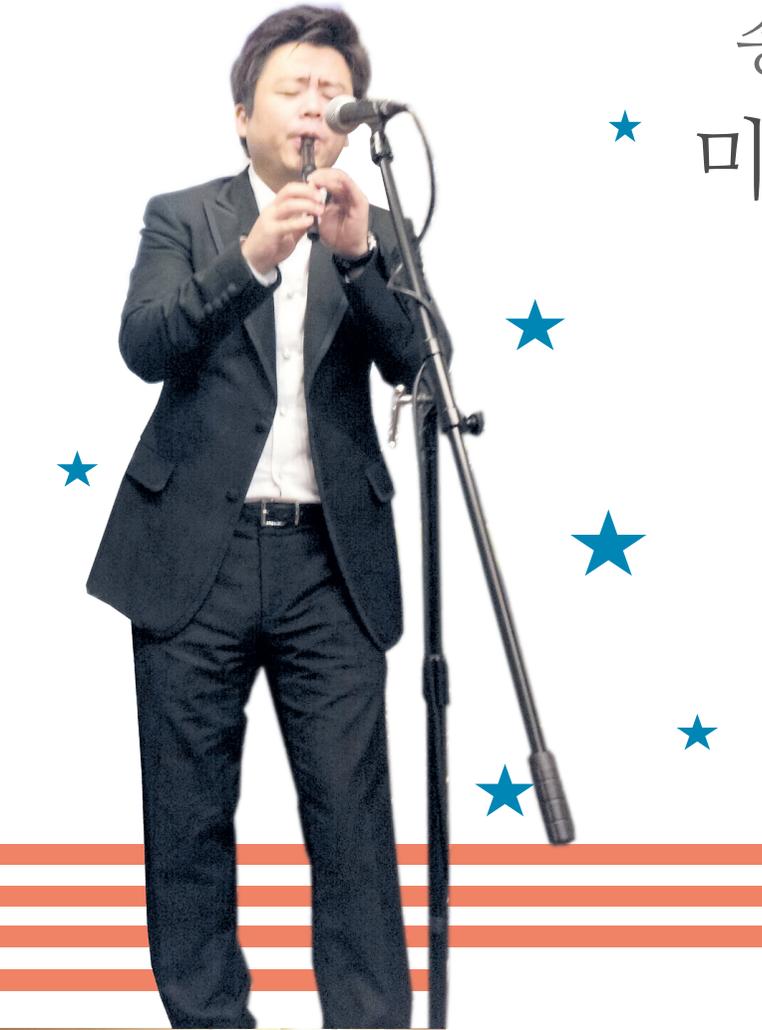
송솔나무 홍보대사 미주순회 콘서트

다일공동체 홍보대사이며 하나님의 연주자인 플루티스트 송솔나무님의 미주순회 콘서트가 지난 5월 6일 애틀란타, 8일 뉴욕, 9일 시카고에서 있었습니다. 세계 80여개국을 돌며 하나님을 연주하는 바쁜 일정 가운데도 다일공동체 홍보대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2011년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미주순회 콘서트를 열어 주셨습니다.

일정상 평일에 콘서트를 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각 지역 벗님들과 후원회원님들의 수고로 콘서트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Atlanta

5월 6일 애틀란타 콘서트는 유빌라페 카페에서 있었습니다. 2011년도와는 다른 레퍼토리로 준비된 이날 콘서트는 말그대로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70여명의 청중들로 모처럼 카페가 가득 찼고, 참석한 거의 모든 분들이 네팔 빈민촌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유빌라페의 본래 뜻(기뻐하라)처럼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콘서트를 위해 수고해주신 정에스더 집사님과 민지홍 형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월 8일 뉴욕 콘서트는 뉴욕다일후원회장 송병기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목양장로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뉴욕다일후원회 창립후 처음 갖은 후원음악회인데 송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수고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도 콘서트에 참석한 거의 모든 분들이 네팔 빈민촌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얼마전 시작한 네팔다일농장의 염소(암 염소 1마리 50불)와 토종닭(1마리 20불)을 위해 후원하신 분들이 참 많아서 행복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를 위해 애써주신 송병기 목사님, 사무총장 김홍석 목사님, 고문 김용걸 신부님, 영성벗님들과 후원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목양장로교회 네팔목장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Chicago



5월 9일 시카고 콘서트는 베다니장로교회에서 지역의 K-Radio와 공동주최로 열렸습니다. K-Radio의 수고로 이 방송을 들은 많은 분들이, 특히 음악인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늘 수고해주시는 이진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 행사에서도 참석자 전원이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시카고다일공동체 자비량 간사로 수고하시는 이숙의 집사님의 눈물겨운 수고와 헌신으로 시카고 콘서트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숙의 집사님 부부와 시카고 벗님들, 후원회원님들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콘서트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거듭 감사드리며, 바쁘고 힘든 일정 중에도 수고하신 송솔나무 홍보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콘서트를 위해 애틀란타에 도착하던 날, 송집사님의 사모님이 유산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지만 오히려 네팔 빈민촌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를 일대일결연을 통해 입양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고백이 아직도 제 가슴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종원
미주/네팔 다일공동체 원장



미주 다일공동체 문의

1-770-813-0899 / ecivillo@dail.org

한국허벌라이프(주) 정영희 대표이사 인터뷰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다’ 한국허벌라이프(주)

먼저 지난 5월8일 어버이의 날에 한국허벌라이프에서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이번 오병이어 나눔축제에 임직원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너무나도 성실하게 임해주셨다는 평이 자자했습니다. 사장님께서 느끼시기에는 어떠셨나요?

한국허벌라이프 임직원이 하나된 모습으로 보람을 느끼며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매우 기쁜 하루였습니다. 무엇보다 자사가 후원하는 사단 복지법인인 다니엘의 공연단 ‘다니엘 보이즈’의 장애아동들의 재능 기부로 펼쳐진 합창 및 사물놀이 공연도 함께 해서 더욱 뜻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허벌라이프 임직원들 모두 내년에도 꼭 다시 오겠다고 말할 만큼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밥퍼에 꾸준히 봉사도 오시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르고, 정직하고, 도덕적인 일을 한다”는 허벌라이프의 가치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밥퍼에서 봉사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허벌라이프가 밥퍼와 함께 이웃 사랑을 실천한지도 어느덧 6년째가 되었습니다. 허벌라이프는 사회공헌 활동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온 기업입니다. 지역 사회에 보탬이 되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많은 분들께서 주시는 사랑에 보답하는 방법이며,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저희 사훈처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특히 허벌라이프는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버이날처럼 가족간의 따뜻한 정이 더욱 절실한 날, 외로움을 느끼실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밥퍼의 나눔 활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밥퍼에 오셔서 봉사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지만 가실 때 보람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곤 하는데요. 직접 내가 수고해서 만든 음식을 드시는 것을 보면서 더욱 보람을 느끼신다고 해요. 사장님께서도 밥퍼 봉사를 하시면서 마음에 크게 와 닿는 것이라고 할까요? 소회가 있으시다면요?

허벌라이프는 다일공동체가 진행하는 다양한 후원 행사에 참여해왔습니다. 추운 겨울 어르신들께 방한복을 나누어 드리거나, 어르신들과 함께 효도여행을 떠나 온천 관광, 노래 자랑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또한 자사의 건강기능식품도 지원하고 있지만, 어르신들께 직접 음식을 나눠 드리는 밥퍼 봉사는 참여할 때마다 오히려 제가 어르신들께 따뜻한 정과 마음을 전달받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봉사를 하러 왔지만, 오히려 저희가 큰 사랑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한국허벌라이프 임직원들이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저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도 이러한 활동을 하시는지, 한국허벌라이프의 사회공헌이나 나눔 활동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허벌라이프는 전세계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후원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자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카사 허벌라이프 (CASA Herbalife)’를 통해 전세계 90여개 국가의 16,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매일 영양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7년 ‘상록보육원’에 첫 번째 카사 허벌라이프를 출범하여 아이들의 균형 잡힌 영양식 후원 및 환경 구축을 시작으로 ‘어린이재단’, ‘혜심원’에 이어 곧 ‘대구아동복지센터’에도 본 프로그램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건강식 후원 및 부엌시설, 도서관 등의 시설 개·증축을 돕고 있으며, 체계적인 인성 교육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외부의 정식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회사 내부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모금된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회사 차원의 후원을 넘어 허벌라이프의 회원과 임직원은 ‘일대일 후원’ 프로그램을 통해 상록보육원 및 어린이재단의 아이들과 일대일로 후원을 맺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회원은 대학 입학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매년 수천 만원의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후원해 오고 있기도 하고, 개인 사비를 출자하여 카사 허벌라이프 기관 내 시설 개·보



수를 돕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용적인 후원 외에도 허벌라이프의 회원과 임직원들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김장담그기, 명절음식만들기, 밥퍼에서 진행하는 어버이날 효도잔치, 크리스마스 행사 등의 기부 행사에 함께 참여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허벌라이프는 자사의 고유한 인프라를 기부금 모금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사 고유의 품목번호 시스템 ‘SKU(Stock Keeping Unit)’는 회원들의 제품 주문 및 구매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으로서, 이를 기부금 후원에도 접목시켜 쓰나미, 지진 등 전세계적인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회원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 시스템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모아진 성금을 국제구호기구를 통해 신속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허벌라이프가 사회 속에서 어떤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지, 국민들과 함께 하는 허벌라이프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예정이신지요?

허벌라이프는 ‘사람들의 삶을 바꾼다 (Changing People’s Lives)’는 창업자의 기업 정신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입니다. 최고의 제품으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전파함과 동시에 소외된 이웃의 마음도 따뜻하게 감싸는 기업이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성 있는 사회 공헌 기업 활동을 펼쳐 업계를 뛰어넘어 건강의 상징이면서도 나눔의 대명사가 되는 모범 기업 시민이 되어 갈 것입니다.

천사기업들을 기다립니다.

다일공동체의 국내외의 사업에 동참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실 기업을 기다립니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지금부터, 여기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다일복지재단 02-2212-8004
 밥퍼나눔운동본부 02-2214-0365

밥퍼는 000이다

정이다 한전KDN 이창열
오늘은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배식을 하며 식판 가득 쌓여있는 밥을 보며 깜짝 놀랐다면 한편으로는 밥퍼의 정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져간 식사를 남김없이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일의 정을 이분들이 받아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 나누기다 한전KDN 정아름
보통 나누기를 하면 크기가 줄어드는데 밥퍼는 사랑을 나누면서 그 사랑의 크기를 키우고 있다. 음식 재료를 다듬고 배식을 하고나서 맛있게 드시는 어르신들을 보니 너무 뿌듯하며 의미있는 하루를 추억하게 되었다.

생명이다 CBS CLA 5기/우리은행 광진성동영업본부장 이점수
공기와 물은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거저주신 선물입니다. 밥퍼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이다 일신건영 이상미
오늘 밥퍼봉사에 참여하며 이곳의 사람들을 봅니다. 밥을 공짜로 먹는다는 불쌍한 마음 자괴감을 가지지 않도록 백원을 가져와 내 정당한 밥값을 내고 먹는다는 자존감을 그들에게 넣어준다는 취지가 참 인상적이었고, 이곳에 있는 일손들의 얼굴이 참 환하다는 것, 일상이 뭐가 그리 힘든지 가끔 들여다보는 거울속 제 얼굴에 약간의 반성도 해보고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 모를 작은 제 일손 돕기보다 큰 배움을 얻고 갑니다.

걸음마다 새로운교회 박송자
결혼전 우리부부는 다짐했던 것이 있었다. 결혼하면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며 살겠다고... 그러나 우리는 참 바쁘게 23년을 살아온것 같다. 그 다짐을 뒤로한채... 최근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서 그 다짐들이 생각났고 첫걸음마를 뛰는 심정으로 이 사역에 처음 등장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후반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눔으로 반응하며 살려고 한다.

회초리다 삼성서울병원 장진영
일상에 지쳐 매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밥퍼는 회초리다, 나의 마음을 깨우고 정신을 깨우는 나를 다잡고 나를 일깨우는 정신적인 회초리... 밥퍼를 통해 나를 돌아보고 굳었던 마음의 벽을 깨고...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소통이다 한일이화 오형진
오늘 봉사활동을 하면서 약700여분과 인사를 나눈 것 같습니다. 비록 제가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인사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분 좋게 받아주셔서 저도 아주 흐뭇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오겠습니다. 밥퍼 화이팅!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삼성SDS 유태희
오랫만에 다시와보니 시설이 너무 좋아져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만큼 밥퍼를 생각해주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의미겠죠. 각박하게만 느껴졌던 일상이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껴지고 이웃에 대한 관심과 봉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지 알게 된것 같습니다. 나눔과 봉사로 제 마음이 따뜻해 졌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삶의 호흡이다 세무법인 가은 권춘기
가난 구제는 나랏님도 하지 못한다 하였는데 오늘날 공동체 구성원의 경제적, 사회적 책임이 다양하여 힘들고 외로운 하루를 보내는 구성원이 너무도 많은데도 공동체의 책임만으로 돌리기는 너무 아픕니다. 구성원 모두가 조그만 힘이라도 서로 돌봄에 힘쓸 수 있다면 그 또한 보람있는 일로서 생활의 호흡이라 여깁니다.

진실이다 흠플러스 김원중님
오늘은 참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과 엄청난 양의 식사를 대접할 수 있어서 힘들지만 보람되었네요. 한끼 한끼 귀중한 시간을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더욱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낮아짐이다 주전자팀 방신철님
직장생활 23년 이후의 나눔이 첫자리... 부끄러운 마음에 더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여건이 되는 한 나눔과 더불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 감사합니다.



오월의 푸르름과 함께 젊음의 에너지!!! 보스턴컨설팅의 젊은 컨설턴트와 직원이 함께 밥퍼에 오셔서 밥퍼봉사 컨설팅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기쁨과 행복의 향기를 한껏 뿜어주고 가신 "보스턴컨설팅" 여러분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멋쟁이 미녀들이 밥퍼에 등장했다!!! 우리나라 선행배운을 담당하는 한진해운에서 세운 양현재단의 최은영회장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미녀봉사단이 밥퍼에서 기쁨의 향기를 발하는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배식비까지도 넉넉히 후원해 주신 양현재단 미녀봉사단 짱이야!!!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해^^ 정말로 행복한 봉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의 가족들이 어른, 아이 모여서 옹기종기. 아기가 다정하게 밥퍼의 가난한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섬겨주셨습니다. 봉사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삼성서울병원입니다.



따뜻하고 너그러운이 풍겨나는 세무법인 가은에서 권춘기대표님과 직원분들이 오랜만에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비를 준비하셔서 밥퍼를 찾아오셨습니다. 독배기 같은 푸근한 미소로 밥을퍼며 봉사내내 즐거운 마음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천사입니다^^



신선한 우유를 밥퍼에 전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봉사합니다. 항상 지속적으로 꾸준히 감동적으로 봉사해주시는 서울우유 봉사팀이 밥퍼를 섬겨주셨습니다. 매번 봉사때마다 다양한 우유로 어르신들의 건강까지도 책임져주시는 서울우유, 당신이 천사입니다!!!



쌀 풍년이 왔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넉넉한 인심으로 밥퍼어르신들의 맛난 밥을 해드리라고 햅쌀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밥퍼봉사도 풍년의 잔치날처럼 싱글벙글 즐겁게 봉사해 주셔서 더욱 감사가 넘쳤습니다. 고마워요, 한국장학재단! 사랑해요, 한국장학재단!



밥퍼명예본부장 조용근장로님과 함께 김용정목사님과 성도분들이 아름다운 섬김을 실천해주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감동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조용근 명예본부장님께서 밥퍼시스템으로 봉사하는 주방장님과 스태프들의 수고를 위로하고 격려해주셔서 밥퍼가족들이 크게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외식업체 떠오르는 별!!! Ssanggye의 젊은 직원들이 함께한 밥퍼 봉사입니다. 역시 외식업체라서 모든 재료준비를 딱딱^^ 이분들의 손에 재료들은 어떤 음식이든지 예술로 바뀝니다. 멋진 상차림으로 멋지게 식탁을 꾸며주시는 Ssanggye!!!! 최고!!!



건설공제조합 임경국전무님이 직원들이 밥퍼 어르신들께 따뜻한 사랑의 밥을 지어드리라고 밥퍼배식비와 함께 감동의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오랫동안 봉사한 베테랑답게 아주 능숙하고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으로 밥퍼의 하루를 빛내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 잊지 않겠습니다.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길...

작은천국의 선한 사마리아 쉼프

- 남연옥 주방장님

새벽에 출근하면서 오늘 메뉴를 생각한다.

아침엔 무슨 국을 끓일까? 점심메인은 무엇으로 할까? 또 간식은 무엇으로 하지? 저녁엔? ...

매끼 메뉴 생각에 머리는 열심히 움직인다. 오늘도 생각하다. 아침 국은 쇠고기 미역국, 고등어 자반구이. 또 나물한가지.. 좋다! 미역국이다! 결정하며 미역국과 고등어자반을 카레가루에 묻혀 튀겨내고 취나물을 볶아서 아침 배식이 시작되었다. 식사시간이 거의 끝날 무렵 제일 막내인 김영록님께서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려다가 내가 가까이 가자 큰소리로

"권사님! 오늘 저 너무 감동이에요!" 하기에 나는 깜짝 놀라며

"어머! 영록님 왜요? 무슨 일로 감동을 하셨죠?"

"권사님! 오늘이 제 생일이예요. 미역국을 먹고 싶고 생선도 먹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아침식사를 기다리는 중에 병실 창문으로 생선 굽는 냄새가 올라와 기대했고 또 미역국이라 너무 감동이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며 내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것이 아닌가! 나도 내심 놀라고 너무 감사해서

"어머! 그렇군요, 오늘 영록씨 생일



이군요!" 하며 식당에 남아있는 분들과 함께 생일 축하 노래라도 불러드리려고 "여러분! 오늘이..." 하며 내가 큰 소리로 환우들을 부르자 당황하며 손 사레를 치며 말하지 말라고 강하게 거부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알았다고 하며 작은 목소리로 생일 축하한다고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때서야 안심된 표정을 하며 너무너무 고맙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머리를 몇 번이고 조아리는 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참 많이 아팠다.

반면에 그의 생일 미역국을 끓일 수 있고 또 그가 좋아하는 생선구이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순간 감사의 기도를 마음속으로 부터 올렸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경제난으로 인해 가족과도 헤어지고 또 갑자기 귀가 안들려 장애자가 된 저 아들이 방랑자처럼 떠돌다 작은 천국에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생일날을 맞아 아무도 모르게 지나갈 수 밖에 없었지만 저를 통해서 생일 미역국을 먹게 하시고 좋아하는 생선을 먹을 수 있도록 제게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처럼 작은 자들을 위해서 다일복지재단과 작은천국을 준비하시고 이들을 치료하시고자 천사병원을 세우셨군요. 또한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선한 사역에 동참케 하시어 그 때 그 때마다 은혜를 입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역국이 끓이고 싶어 끓일 때마다 꼭 그렇게 생일을 맞으신 이들이 식당 문을 열고 나가시며 내 생일날을 어떻게 알고 미역국을 끓였냐며 감사하다고 몇 번씩 인사를 하고 나가실 때마다 내 가슴 저 밑바닥에 눈물이 고이며 울컥한다.

항상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때문 힘들고 지쳐 내려놓고 싶을 때 내게도 큰 감동으로 다가와 다시금 새 힘을 얻고 귀한 직분 잘 감당해야 겠다며 다시 한 번 마음을 정리해 보곤 한다.

이분들의 가족이 하지 못하는 것 먹여주고 치료해주는 이 일을 다일복지재단을 통해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나 남연옥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같다.

삶이 시작될 때

작자 미상

태어날 때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시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것이 20세일지, 30세일지 아니 40세, 50세, 60세일지.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누구와도 꼭 같을 수가 없습니다.

소박한 삶의 목표를 향해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갈 때 진실한 삶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받아들이며 지난 일을 돌아봐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고쳐 나갈 때 겸허한 삶이 시작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나의 시간과 능력과 사랑을 보답을 바라지 않고 줄 수 있을 때 사랑의 나눔 그 아름다운 삶이 시작됩니다.

진리 안에서 삶의 참뜻을 발견할 때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비범함을 키워 나갈 때 빛나는 삶이 시작됩니다.

하느님의 극진한 사랑을 체험하며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날 때 그리하여 흐르는 시간 속에서 영원이 문을 열며 다가섬을 깨달을 때 영원한 삶이 시작됩니다. 지금, 여기에.

영혼을 위로해 주는 시 [이루어지게 하소서](도서출판 마음의 숲) 중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김연수 시인이 소중하게 여겨온 기도시들을 번역하여 엮은 책으로 신앙인이 아니어도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위로 받고 싶고 용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힘이 되는 글들이 담겨있습니다.

시인은 현재 다일영성생활수련원 원장이자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의 상임이사이며, 시집으로는 <숨어사는 신화> <그대가 내게로 오면> <아득한 별에 꽃씨 묻으며> <실락원의 연인들> <꽃심>이 있으며, 산문집으로 <사랑이 있어도 때로는 눈물겹다>등이 있습니다.

베트남

1. 대.청.밥(대한민국 청소년 밥퍼) 오리엔테이션



대.청.밥(대한민국 청소년 밥퍼)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습니다. 체계적인 봉사 와 준비를 위하여 대.청.밥 회원 스스로 자원하고 추천하여 대.청.밥 전체회장으로는 김병준, 고등부회장 정상화, 중등부회장 최예린이 선출되었고 5개 조로 나뉘어 봉사를 하게 되어 조장으로 김희성, 오채린, 배진영, 김희수, 이은채로 정해졌습니다.

처음모인 자리라서 어색하고 낯선 만남의 시간이었지만 어려서부터 가난하고 헐벗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대.청.밥회원들을 보니 미래가 밝고 희망이 생깁니다.

대.청.밥이 있어서 대한민국은 든든합니다. 56명의 대.청.밥 회원들 화이팅!

2. 최철우 우리은행 호치민지점장님.



정기적인 봉사와 후원으로 섬겨주셨던 최철우 우리은행 호치민지점장님께서 승진 발령이 나서 서울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발령으로 서둘러서 가시면서도 서울로 출국하는 당일 오후에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밥퍼 사업지에 오셔서 쌀과 과일, 과자등을 준비하여 전해 주셨습니다. 밥퍼에 대한 애

정이 크셨던 만큼 헤어지는 마음도 많이 아쉬워 하셨습니다.

3. 포스코ICT 직원을 봉사.



포스코ICT는 정기 후원은 물론이고 한 달에 2번 봉사를 옵니다.봉사를 올 때는 항상 바나나와 쌀을 사와서 도움이 더 필요한 분들을 선별하여 쌀을 나누어 드립니다. 쌀을 사는 돈은 회사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손님들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회식하러 주는 격려금과 현지 직원을 월급의 일부분을 모은 돈으로 쌀을 사가지고 옵니다. 나 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스스로 자기 것의 일부분을 기쁨으로 나눌 줄 아는 포스코ICT 직원들이 있어서 살맛나는 세상입니다.

4. 베트남다일공동체 사역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최일도목사님께서 캄보디아를 거쳐 베트남에 오시면서 베트남다일공동체 사역에 꼭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라며 차량구입비 \$10,000을 전해 주셨습니다. 현재 베트남 다일공동체는 한인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후원 받아도 물품을 운반할 차량이 없어서 물품을 꼭 필요로 하는 우리의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에게 물품들을 전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베트남다일공동체에 필요한 차량구입을 위해서 \$20,000이 더 필요합니다. 베트남 다일공동체 밥퍼 사역에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여 천사가 되어 주세요.

중국

1. 자랑스러운 언니, 형님들이야기



중국다일어린이집에서 성장한 언니, 형들이 지난 춘절(설날), 훙커밍데이를 기점으로 모임(대표 리예화)을 만들었습니다. 외지에 흩어져있지만 서로 외이썬(중국의 카톡과 같은)으로 그룹방을 만들어 안부를 전하고 서로 기뻐하고 위로하며 마음을 나눕니다. 형님들의 이 모임의 주 목적은 친교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했것은 이 회비의 50%를 무조건 매달 다일어린이집의 동생들을 위해 정기후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와 광조우, 베이징, 연길, 훈춘... 매달 중국 전역에서 모여지는 그 마음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독립한 전체 아이들이 한마음을 모아 보내주는 이 후원금은 너무나 의미 있고 감사한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귀한 후원금의 의미를 동생들에게 잘 설명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뜻가운데 잘 성장하는 다일의 자녀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2. 포콘스에 감사드립니다!

다일어린이집은 매년 4월이면 1년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는데 이일이 1년중 가장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포콘스(대표 정낙한 사장)와 케이에이치일렉트로에서 13,000,000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캄보디아 시엠립과 한국의 밥퍼등 다일의 모든 사역에 아낌없는 후원을 보내주시는 포콘스에 멀리 훈춘에서 감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3. 예전 하와이 코나 DTS팀 방문

예전 하와이 코나 DTS팀이 올해도 방

문하셔서 이틀 동안 맛있는 음식도 함께 만들어 나누고 아이들과 함께 온 집안의 대청소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안이 깨끗해지고 한겨우내 비닐로 밀봉했던 창문들의 비닐을 떼어내고 테이프를 떼어내니 집안의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4. 캐나다로 가시는 앤 선생님



훈춘에 거주하시며 중국 다일어린이집의 4년 후원자이시자 봉사자이신 류앤님께서 캐나다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랜시간 한가족보다도 더 가깝게 지낸터라 아이들이 너무 서운해 합니다. 다일어린이집 온 가족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캄보디아

1. 데오스고등학교 학생들의 착한여행



데오스고등학교 학생들이 '착한여행'(4월 29일 - 5월 2일)으로 캄다일을 방문하였습니다.

매일 밥퍼와 빵퍼 그리고 센터 주변 청소와 함께 '사랑의 집짓기'를 실시하여 우리 빵퍼 스텝이었던 '므이'의 집을 지어 주셨습니다. '므이'는 지금 만삭의 몸이며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살집이 없어서 친정에서 눈치밥을 먹으

며 동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젠 판나무로 지은 새 집에서 세 번째 아이를 맘 편히 낳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갈 모습을 생각하니 참으로 감사가 넘쳐납니다. 강기호 이사장님, 교장 선생님, 데오스 가족들 감사합니다!!!

2. 부산국제고등학교의 수학여행

부산국제고등학교에서 2학년 전체 학생 170명과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들이 수학여행을 시엠립으로 오셨습니다. 캄다일 밥퍼와 함께 하는 수학여행을 기획하면서 우리 센터로 오는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줄 선물을 일일이 하나씩 정성껏 포장하여 갖고 오셨더군요. 그 뿐 아니라 멋진 춤까지 열정적으로 보여주셔서 우리 모두 축제 분위기 속에서 즐거웠던 하루였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못내 아쉬운 듯 손을 흔들며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꼭 다시 오고 싶다는 말들을 수도 없이 하였습니다. 그 날 하루 170명의 학생들이 즉석에서 주머니를 비워 모아 준 후원금이 백 여 만원이나 되었습니다. 벅세다 들녘의 한 소년이 예수님께 내어드린 오병이어의 역사가 오늘 캄다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매일 매일이 감동의 현장인 캄다일입니다.

네 팔

1. 사랑의 열매 대안 생리대 6차 교육매달 열리는 여성 인식 교육이 점점 자리 잡아 가면서 많은 여성들의 등불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월경을 처음 시작한 아동이 피가 계속 나고 배가 아프다며 어머니와 함께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몸을 관리하여야 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등을 가르쳐 주며 마음껏 축복해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월경을 불결한 것으로 여겨 창고에 가두거나 부엌에도 출입하지 못하게 하던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게 많이 변한 것을 보며 가슴이 벅

찹습니다.

미싱 교실 아주머니들의 기술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엔 처음으로 목표 수량 1,000개를 채웠을 뿐 아니라 파우치, 가방 등을 만드는 기술도 눈에 띄게 발전하였습니다. 아주머니들께서도 발전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 보며 교육에 대한 의욕과 열정이 더욱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2. 제4회 지태다일유치원 입학식



2013년 4월 16일, 지태다일유치원의 4회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입학식 당시 엄마를 찾으며 내내 울기만 하던 아이들은 겨우 한 달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부쩍 의젓해져 있습니다. 자유시간에는 친구들과 즐겁게 놀기도 하고, 선생님을 보며 노래와 율동도 제법 잘 따라합니다. 유치원 입학 후 두 달 동안은 아이들이 많이 울 거라 예상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유치원 생활에 적응하는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참 뿌듯하고 대견합니다. 1년이 지난 후, 키도 생각도 훌쩍 자라 있을 아이들을 상상하며 입가에 미소를 지어봅니다.

필리핀

1.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 손병윤님

손병윤님께서 필리핀다일공동체를 찾아주셨습니다. 다일직은천국에 매주 목요일이면 꾸준히 오셔서 바지 걷어부치고 화장실 청소를 맡음하게 해주시는 사업가이신데, 다일공동체 해외분원에서는 봉사활동을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 하시던 차, 제가 여기 있음을 아시고 겸사 겸사 오신 겁니다. 매일

2013년 4월23일~5월22일

우리와 함께 밥퍼 센터에 출근(?) 하셔서 아이들을 위해 아버지처럼 묵묵히 사랑을 보여주셨고, 특히 마지막 날에는 아이들을 위해 닭고기반찬을 푸짐하게 제공해주셔서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여름 휴가 때 가족들과 다시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꼭 다시 오세요.^^



2. 필다일에 의료 자원봉사가 필요합니다.
필다일 아이들은 피부병이 유난히 많습니다. 너무 가난한 지역이라 병원에도 가지 못 한 채 우리 센터를 찾아와서 약이라도 발라달라고 요구합니다. 상처나 간단한 외상 같은 경우엔 제가 치료를 해주지만, 더러는 병원에 꼭 찾아가야 한다고 말해주곤 합니다. 의료 자원봉사자 혹은 봉사팀이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3. BCP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순구개열 아이들이 종종 눈에 띄입니다.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BCP를 진행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찾아주고 싶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4. 필리핀다일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필다일은 다일의 해외분원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고, 지리적으로도 외진 데 위치하여 방문자도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후원의 손길도 매우 미약합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설곡산

1. 생명축제에 감사드리며...

2013년 5월 4일(토)~5일(주일)까지 1박 2일 동안 열린 설곡산 생명축제에 보내

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부로 진행했던 산나물채취를 통해 설곡산에 허락하신 건강의 보물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새삼 놀랐습니다. 취나물, 우산나물, 고추나물, 다래순, 고사리, 두릅 등과形形色색의 야생화가 만발한 설곡산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1년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물들로 가득찬 설곡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YWCA 역대 이사님들의 방문

지난 5월 13일 월요일 YWCA를 위해서 수고하신 역대 이사님들의 모임을 설곡산에서 가졌습니다. 모두 은퇴하신 어르신들이지만 함께 정오 기도회를 드릴 때 꺼내 보여주셨던 중보기도의 주머니들엔 나라와 민족,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이 분들이 지난 섬김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잘 보여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대부분 75세 이상되신 역대 이사님들이었지만 주님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나 푸르셨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설곡산에서의 행복한 영성과 침묵의 하루를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설곡산 다일공동체 031-585-2004, 설곡산다일공동체 원목 010-7756-8004

작은천국

1. 노숙인 2차 B형간염 예방접종 실시

5월 13일 오후 2시부터 3시간동안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2차 B형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101분이 예방접종 받으셨습니다.

2. 작은천국 리모델링



작은천국 5층, 리모델링 공사로 한창 분주합니다. 작은천국 입소자분들의 증가와 더불어 입소자분들의 복지를 위해 병실을 늘리고, 편의시설을 확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따뜻하고 새로워진 작은천국을 기대해주세요!

예향어린이집

1. 어린이날 행사



지난 5월 3일, 어린이날을 축하하며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활동들이 어린이집 내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무지개 물고기'라는 주제로 3~4가지의 다양한 활동을 연계성있게 진행하였습니다. 예향친구들도 어린이날인 것을 알았는지 기분 좋게 등원하여 페이스페인팅도 해보고 원장님께 감사기도와 함께 어린이날 선물도 받았습니다. 팝콘이 튀겨지는 모습도 관찰해보며 무지개 물고기 쿠키 만들기, 무지개 물고기가 되어 친구들에게 비늘 나누어주기, 바다 속 친구들과 함께 비누방울 놀이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신규회원자

(주)금호석유화학, LG생활건강, WENZHENJIN, 강경림, 강달원, 강미숙, 강석정, 강선숙, 강여진, 강찬미, 강현숙, 강환욱, 강호희, 강훈, 개고맨 이정수, 고광덕, 고미옥, 고지애, 곽은경, 구미목자교회, 국문수, 권기영, 권도갑교무, 권상식, 권석규, 권정욱, 권주호, 권혁경, 기린중(2-1번), 기부금다 일재단, 김경림, 김근희, 김나리, 김태현, 김도영, 김명희, 김만기, 김명애, 김민라, 김미현, 김민경, 김민지, 김병수, 김병택, 김삼순, 김상민, 김상분, 김선근, 김성진, 김세희, 김소령, 김수민, 김수성, 김수연, 김수영, 김숙희, 김승남, 김승남, 김신주, 김아영, 김안수, 김영순, 김영준, 김영진, 김영훈, 김예림, 김옥자, 김용순, 김우정, 김원중, 김유림, 김은숙, 김은영, 김은정, 김은희, 김인호, 김지숙, 김정숙, 김정은(조미영), 김중서, 김중숙, 김지민, 김지현, 김지혜, 김진숙, 김창숙, 김창호, 김태균, 김태훈, 김혁성, 김현순, 김현우, 김효은, 나인성, 남시연, 남유선, 노미라, 노영주, 노희용, 디보스턴컨설팅그룹인터내셔널, 동사협성금지원, 라온아띠킴2기, 마은숙, 모디스트커피숍, 목정수, 문경자, 문미녀, 문선아, 문성희, 문현숙, 민동성, 민승아, 박경은, 박래은, 박려선, 박명선, 박미건, 박미영, 박상실, 박상미, 박서진, 박수현, 박슬기, 박연국, 박영관, 박유진, 박유화, 박재훈, 박정식, 박정숙, 박정순, 박정훈, 박주현, 박준서, 박지은, 박하아(최혜림), 박홍대, 박환성, 배금준, 배수민, 배수윤, 백순안, 백성덕, 백희영, 법무법인(유한)세한, 보석상자, 서은성, 서지은, 서태현, 석종식, 선한주, 소경화, 소망고등부, 손덕수, 손미정, 송주연, 신동진, 신은수, 신정자, 심우보, 심원철(최진숙), 안미연, 안민형, 안정희, 양미나, 양혜련, 양혜수, 여혜영, 엄희중, 에스엔엘산업(주), 여승연, 여인섭, 여혜지, 오우성, 오인태, 오인현, 오현우, 왕예림, 우지운, 원미동교회, 유대성, 유성대, 유정훈, 유진혁, 유희정, 윤모임, 윤미애, 윤민지, 윤복선, 윤선자, 윤영돈, 윤인희, 윤정수, 윤종욱, 윤화실, 윤희, 은혜중이제승, 이강인, 이경미, 이경혜, 이광혜, 이그린, 이나경, 이동균, 이동환, 이래덕, 이명순, 이미경, 이미영, 이미자, 이미정, 이병룡, 이병수, 이보람, 이상배, 이상성, 이상훈, 이석철, 이선희, 이선희, 이설자, 이상섭, 이소영, 이소울, 이수영, 이시원, 이아람, 이연서, 이연옥, 이은정, 이인경, 이인옥, 이점수, 이정민, 이정석, 이정재, 이정해, 이정현, 이종기, 이주연, 이주환, 이진주, 이진희, 이진희, 이창래, 이한솔, 이한진, 이형구, 이혜성, 이혜인, 이흥기, 임보배, 임상록, 임아신, 임은정, 임정아, 임준서, 임하나, 임홍도, 장봉열, 장석진, 장세현, 장순애, 장재훈, 장정숙, 장진영, 장해진, 장혜지, 장혜진, 전보람, 전수연, 전순득, 전찬, 전향숙, 전혜림, 정구하, 정길영, 정미연, 정사아, 정성호, 정소라, 정영수, 정영수, 정우연, 정은애, 정은진, 정주리, 정지우, 정형숙, 조성민, 조수연, 조순옥, 조승철, 조은누리, 조은희, 조재민, 조종현, 조현문, 조현철, 주석희사제님, 주호철, 지미혜, 지현자, 차주희, 천이승, 최민영, 최봉운, 최소정, 최숙자, 최영선, 최우식, 최우식, 최은정, 최은혜, 최인규, 최재평, 최지향, 최지혜, 최진택, 최철로, 최태민, 최현주, 최혜림, 최혜정, 최효선, 추미미, 카이스트대학, 캄다일공동체, 한승진, 한은성, 한종업, 한진화, 한창민, 한채진, 한춘미, 한혜진, 함영덕, 행복한도시락4/27, 홍석순, 홍세진, 홍수현, 홍순화, 황난희, 황정화, 휘경여고사프른 (가나다 손)

4월11일~5월10일

밥퍼 - 후원금

현대상선, 외환은행나눔재단, 소망봉사팀, 안호동/김세희, 최주영, 서정숙, 신민수, 권혜진, 윤현숙, 정신남, 광천교회, 최외재, 한전KDN, 흥화화, 한국경제TV생방송공감투자, 이희숙, 수도권선악회, 김향숙, (주)에스지엔지, 김은경, 뷰티플마인드, 양순화, 박종일, 국순애, 황재영, 양현재, 안효진, 이종욱, 건설공제조합, 휘경여고사프른, 김재하, 번성하는104, 삼성서울병원, 장문성, 최민영, 서장선, 행복한도시락, 김중서, 안효진, 이동원, 세무법인가은, 3050아띠선악회, 개고맨이정수, 대한지적공사 동대문지사, 윤순옥, 강찬훈, (주)에이엠지, 최경근, 김원중, 미래에셋, 구미목자교회, 소망교회고등부, 최주영, 롯데월드봉사단(김봉철), 서울메트로신답승무사업소, 이창환, 기린중학교2-1, 국방홍보원, 박명숙, 이일옥

4월11일~5월10일

밥퍼 - 후원물품

4/12	청량리열차승무사업소 쌀 4포	4/25	서울우유 커피믹스 16case	5/3	가나다푸드 김치20kg 1box
4/16	가나다푸드 김치20kg 1box	4/25	김한진 쌀10kg 1포	5/4	골드후레쉬 청포도 21box
4/16	(주)보이락 보이차 1248병	4/27	무명 쌀20kg 2포, 김치 1box	5/7	홈플러스동대문점 쌀20kg 5포
4/17	드림재단 빵 700개	4/27	법무법인 세한 쌀10kg 30포	5/8	하벌라이프 건강식품 150set
4/17	서울우유 우유 1008개	4/27	나눔스토어 쌀10kg 20포	5/8	가나다푸드 김치20kg 1box
4/19	무명 김치 64캔	4/29	무명 오이장아찌 65kg	5/8	서울우유 우유 1008개
4/22	롯데월드나누리회 라면 1664봉	4/30	드림재단 빵 700개	5/8	드림재단 빵 700개
4/23	가나다푸드 김치20kg 1box	5/2	한국장학재단 쌀20kg 32포	5/10	금호석유화학 쌀20kg 23포
4/23	사랑의기도원 두부 3판	5/2	사조 고추장3kg 280통,	5/10	안춘애 김치82kg, 마늘종 9kg
4/24	드림재단 빵 700개		건강초900ml 2073병		

베트남

대우인터내셔널, 우리은행 호치민지점, 포스코베트남, 보민건설, 아산상선, 김희경, 베기스, 향기론목장, 한 글로벌, 김명환, 김홍수, 아리랑화학, 김진형

베트남-물품후원

도넛도넛(406개), 포스코CT(쌀40kg,바나나), 베기스(우유2BOX, 커피면4BOX), 향기론목장(계란120개), 서림(순가락), 지윤,지민(180만동)

네 팔

속초중앙교회, 액션에이드(덴마크NGO단체), Binita, Manika, 서울수산교회, 최충탁, 이정화, 선우진주

중국

강영남(홍콩), 김성재(Obey & Praise), 김혜화(대련), 다일

어린이집 졸업생 모임, 림예화+한원철(COFFEE PLUS), 류엔(144기 반딧불님), 아브라함(빵1B), 이숙의(시카고), 양자선교회(대표 허에스터), 하와이 코나 DTS, 훈춘시 제1,2고중 학생들, 무명(김후원)

캄보디아

라온아띠 9기, 로터리클럽, 권혁경, 김영란, 호치민경제대학최고경영자출업1기, 최균용, 지일환, 서미경, 서인서현, 변창재/이현선, 장홍이장님, 고구려대학 다문화복지과, 금천구의회, 사랑의교회, 현대종합상조, 테오스학교, 표용희/이은경/표시현/표시연, 강릉영동대학, 프놈펜-토마토은행, 카도, 권순호, 프놈펜-토마토은행, 금호건설, 하나투어, 그린파이낸스, 부산국제고등학교, 문익경

필리핀

손병윤, 설나현, 김혜경, PTS교회, 이명현

"현장에서 후원금을 전달해 주신 분들입니다."

"지속적인 사랑으로 후원해주시는 후원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일은 여러분의 맘과 정성이 담긴 귀한 후원금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사역에 앞장서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일복지재단 후원안내

ARS 060-708-1588

다일복지재단 후원 방법 안내

1. CMS(자동이체)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다일복지재단(02-2212-8004)으로 전화주시면 CMS신청이 가능합니다.

2. www.dail.org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후원에 대하여 알 수 있고 손쉽게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후원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3. 착한소비 행복한 나눔

사랑의 보험

매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을 기부플랫폼에 견적예약 하면 보험만기 1개월 전에 8개 보험사 비교 견적을 제공하여 가장 좋은 가입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동시에 수익금의 일부가 다일공동체에 기부됩니다.

모든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체 참여

후원 문의 TEL 02-2212-8004
FAX 02-2212-8032
www.dail.org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1동 497-77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미주지역 후원계좌

은행이름 : First Intercontinental Bank
은행번호 : 061119794
계좌번호 : 1510014622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은행이름 : Bank of America
계좌번호 : 334001270347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한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BOFAUS3N
(미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026009593

국내후원계좌 국민 467701-01-053115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미주다일공동체 후원 문의 Tel 1-770-813-0899
Fax 1-770-813-0133

DAIL Community of USA
P.O BOX 337 Suwanee, GA 30024-0337

국내 및 해외 분원 연락처와 후원계좌

밥퍼니눔운동본부 문의 전화 02-2214-0365
E-mail babfor@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37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설곡산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31-585-2004
E-mail abeho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64419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천사병원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Sunyou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01-0975-87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작은천국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bjgjesus@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245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평화의 마을 문의 전화 031-568-5004
E-mail ahtp7749@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245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중국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6-433-753-8004
E-mail mookanri@dail.org 070-7792-5451
후원계좌 기업 017-033086-01-02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베트남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4-12-6317-7912
070-8220-6160
E-mail lplhome@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9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캄보디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55-78-708080
070-8220-3940
E-mail gracekeo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65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필리핀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63-927-560-7346
070-8220-3278
E-mail emhok@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네팔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977-98494-58330
070-8201-5833
E-mail babperdail@hanmail.net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5744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탄자니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255-786-740-003
070-8220-3669
E-mail bcj337@dail.org / dail8004@gmail.com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3396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